

우리의 역사

공동체는 1951년 이탈리아 북부 쿠네오에서 생겨났다. 교구사제였던 젊은 안드레아 가스파리노신부가 제 2차 세계대전(1940-1945)이 끝나고 집 없고 가족 없는 다섯 명의 소년들을 맞아들이면서 시작했다.

소년들은 점차 그 수가 늘어갔고, 나중에는 소년마을이라 부르게 된다.

이 소년들을 돌보기 위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다음에는 첫 봉헌자 자매들이 "신부님"과 함께 하였다. 공동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철저히 내맡기면서 살았고, 곧바로 공동체에게 있어 기도의 중요성은 뚜렷이,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년들의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그러했다.

1959년 2월 11일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시작은 공동체에게 핵심이 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공동체는 더욱 가난한 지역에서 끝자리(가장 가난하고 소외된)에 있는 이들을 섬기려는 원함이 더욱 더 강해졌다. 선교지로 떠나려는 꿈은 1961년 브라질로 떠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른 지역에도 다다르게 되었다.

각 선교의 근본이 되는 두 기둥은 언제나 성체성사를 중점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우정을 맺으면서 그들의 소외와 가난을 나누는 생활이다.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푸코신부를 알게 되고 그의 기록을 알게 되었을 때, 공동체는 거기에서 깊은 일치점을 보게 되고 그의 영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선교지로 떠남과 동시에 공동체의 본원은 젊은이들, 가족들, 모든 협조자들에게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나누도록 불림을 느꼈다. 1990년 공동체는 교황청으로부터 "푸코신부의 관상 선교운동"으로 인준 받음으로써 다양한 삶의 형태 안에서, 공동체의 영성 안에 자신을 재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게 된다.